

부처님 자비의 향이 가득



2013년 정꽃 박정순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한 참사람봉사단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로 생명나눔 명예의전당에 올라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참사람봉사단이 주관한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2013년 국내외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의 협약



2012년 카자흐스탄 장애노인쉼터 건립 모습

자들이 녹음하기 어려운 불경 등 전문적인 도서를 맡아 녹음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자막과 시각장애인 화면해설을 만드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서 일하는 문희상(영상영화학과 졸업)씨는 "학창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찬지를 깨달았다"며 "졸업후 진로결정에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생들

참사람봉사단의 여러 자원봉사 중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는 것은 바로 서울 중구와 2005년부터 10년째 진행 중인 '멘토링 공부방'이다. 멘토링 공부방은 중구가 자체적인 사회안전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에는 기존의 방과 후 공부방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1대1 맞춤형 가정방문 교육,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공부방, 논리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목을 교육하는데 참사람봉사단 소속 동국대학교 학생 619명이 참여했다. 공부방에 수강한 초등학생만 1662명에 이른다.

공부방의 장점은 대학생 한명이 2~4명의 초등학생을

전담해 가르친다는 점이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가진 이들이 이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공부방 모집 때는 이를 신청하려는 학부모들로 자치회관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한 보람이 있다는 입소문으로 동국대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봉사로 국가 위상 제고, 해당국 이해 폭 넓혀

참사람봉사단은 2012년부터 매학기 방학마다 해외에서 학교 및 쉼터를 만드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선 해외에서 학생들이 직접 건물을 짓는 과정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평소 해보지 않던 톱질, 망치질에도 익숙해지고 흔히 '물갈이'라고 하는 해외 현지 적응과정도 거쳐야 한다. 매끼 식사를 해먹는 것도 큰 일이다. 아침, 저녁은 물론 취사시설이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매일 아침 단체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했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이 진행하는 해외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현지 역사와 문화, 사회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기존의 다른 해외봉사활동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학생들은 건물을 세우며 틈틈이 지역학 수업을 듣는다. 해당 국가의 역사는 물론, 현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위치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다. 참사람봉사단 학생들은 유아부터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부터 다양한 미술·음악교육 프로그램과 댄스 등 체육활동을 준비해 선보이기도 한다.

곽락원(건축학과 3) 양은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 곳 사회 분위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비의 봉사정신은 봉사자 스스로의 공덕으로 쌓인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투입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7기 카자흐스탄 봉사단 학생대표를 지낸 뒤 항공사에 취직한 정석찬 군은 "해외봉사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현재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자비와 나눔의 실천은 곧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손재현 부단장은 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해도,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라며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배우는 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사람봉사단 활동에 참여해 따뜻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거듭 나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나는 중매대상 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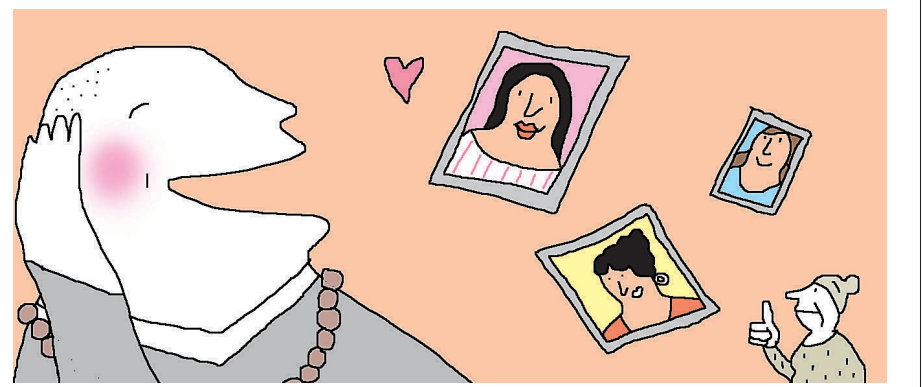
"스님, 장가가실래요?"

지난 해 이맘 때 산책길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던진 말이다. 마을 초입에 사는 할머니인데 나를 보면 늘 웃으며 이것저것 물어오는데 그 날의 질문에는 나도 모르게 웃음부터 나오고 말았다.

동네 초입의 할머니는 그 날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참한 처자가 한 명 있는데 선을 한 번 보시지?"하고 물어보았다. 나는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참을 웃었다. "할머니!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독신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장가를 못 갑니다."라고 정리해 주었더니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지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외롭게 어찌 혼자 살아?"하며 생각이 바뀌면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던 기억

각했을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그랬듯 아직도 시골의 어르신들은 절의 기능은 불공해 주고 관상 봐 주는 그런 곳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러하므로 동네 가까이 절이 있어도 초파일이나 동지 때 가서 축원하는 정도로만 여기도 있다. 다시 말해 불교의 진리를 듣고 배우는 법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정착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었다. 절에 49재가 있는 날은 과일과 떡을 준비하여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절에 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덕분인지 초하루에 한 두 사람들이 다녀가더니 지금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대중법회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일을



그림·박구원

이 난다.

동네에 땅을 사서 절을 후다닥 건립하니가 돈이 아주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났었다. 또한 이 동네 주변에 크고 작은 절이 있는데 다른 종단 소속의 사원이라

다양한 미술·음악교육 프로그램과 댄스 등 체육활동을 준비해 선보이기도 한다. 곽락원(건축학과 3) 양은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 곳 사회 분위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비의 봉사정신은 봉사자 스스로의 공덕으로 쌓인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투입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는 눈치더니 차츰 적응해가는 것을 보면서 절의 공간이 단순히 기복(祈福)에만 머물러 있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배웠다.

여기 오던 첫 해부터 사월초파일 저녁마다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음악회의 장르는 "7080 통기타"로 정하고 70, 80년대의 추억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가수들을 섭외했는데, 이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높았다. 청주 도심의 신도들은 늦은 밤에 오기가 힘든 거리지만 동네 주민들은 걸어서 구경삼아 오기에 딱 좋은 잔치이기 때문이다. 초파일 산사음악회 때마다 동네주민의 숫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올해 초파일에는 율마, 아랫마을에서도 구경 와서 즐기고 갈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 아무래도 도시와 달리 문화 소외지역인 농촌에서 유명가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음악회는 그것 자체가 동네의 축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곳에 절이 생겼더니 이웃 마을 사람들도 가끔 방문하는데 법당참배보다는 나를 먼저 찾는다. 이럴 때 이분들의 방문 목적은 사주나 택일을 봐 달라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로 알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재주가 없어서 봐 줄 수 없으니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준다. 이런 경우는 시내에서 신도들이 줄줄이 들어오니까 주지스님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그렇다. 동네 분들의 입장에서 사주풀이에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있으니까 멀리서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생

여기서의 표교전력은 법회든 음악회든 절에 오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 일은 계속할 것이다.



현선 스님 (정원 마야사 주지)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